

예측불허 證市... 8월 전망도 '분분'

미국발 악재... 조정장세 지속될 듯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코스피 1,800~2,100 박스권 장세 보일 듯

장기투자자 골똥·M&A株 저가매수 기회

000~2,100까지 상승하는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증권과 한화증권은 단기급등으로 가격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증시의 약세로 코스피지수가 1,800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등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비공식적으로 1,800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으며 한화증권은 본격적인 2,000선으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은 코스피지수가 1,900선을 저점으로 2,030~2,100의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증권사는 단기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며 미국의 신용경색 우려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조정이 상승추세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동양증권은 코스피지수가 1,850~2,050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고 국민연금증권은 이번 조정 후 빠르게 반등해 2,0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지속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유망 종목과 업종으로는 조선·기계·항공·해운·증권 등 올해 증시를 주도한 업종과 자동차·반도체 등 가격 매력 높은 종목, 인수합병(M&A) 관련주, 지주사 테마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난주 코스피지수가 꿈의 지수인 2,000선 돌파 후 곧바로 1,880대로 급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온통 증시 조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쏠려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와 고유가로 인해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조정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을 권했다.

◇주간 전망=지난주 지수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이 1주일새 2조3천599억 원어치나 팔아치운 외국인의 매도 공세 때문인 반면 주외국인들의 동향이 중요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낮아져 외국인은 추가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수는 추가 조정을 받아

코스피지수가 1,80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우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고점 대비 최고 10%의 조정을 감수한다면 지수는 1,8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단기 투자자라면 추가 조정 가능성을 감안해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해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덜해 이번 주는 전야후강의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수 변동 범위로 770~800을 제시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경제지표로는 다음달 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ISM제조업지수와 3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 등이 있다.

◇8월 지수 변동 폭 200포인트 전망=주요 증권사들은 8월 코스피지수가 1,800~1,900선을 저점으로 해 2,

소비자 피해 집단보상길 열려

아파트 새시 집단분쟁조정 첫 대상 선정

소비자 권한 강화...업계 비상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대상으로 충북 청원의 아파트 새시 관련 분쟁이 선정되면서 소비자 집단 피해 구제 첫 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한국소비자원에서 신청한 이 안건을 집단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연대해 보상을 신청하므로 그동안 기업과의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1호 대상에 오른 업체는 (주)선우로, 충북 청원군 우림빌유 1차 아파트 새시 시공을 맡았으나 새시 내 보강 빔을 설치하지 않아 아파트 주민 62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조정의 신청 조건 등을 검토한 뒤 개시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를 결정하면 이후 14일간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광고 등을 통해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모르고 있던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게 된다.

기업이 조정위의 분쟁조정안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거부시 피해자나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은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조정안에 합의하면 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모두 보상해야 하므로 소비자 권 강화는 물론 향후 기업들이 불량제품을 줄이고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만원대 콤팩트형 스팀청소기 출시

삼성전자는 29일 기존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크기를 대폭 축소한 20만원대 콤팩트형 스팀청소기인 스팀·스텔스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고급형 등 소형 청소기 2종을 출시했다. <삼성광주전자 제공>

中企 4곳중 1곳 '적자수출'

환율 하락 장기화로 대응 능력 한계 日 진출 기업 10% '아예 수출 포기'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계속되는 환율 하락으로 아예 수출을 포기하거나 '올바른 가격'로 적자상태에서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업은행 산하 기업경제연구소가 제조업을 하는 346개 수출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적자상태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21.0%로 나타났으며 5.5%는 아예 수출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계획대로 수출을 추진하는 업체는 10.2%에 그쳤으며 이익이 감소했지만 수출을 진행하겠다는 업체가 63.2%였다.

특히 일본 시장에 진출한 업체 중 수출을 포기한다는 업체 비중이 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율하락에 따라 지난해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86.8%로 2005년 1월 조사 때의 84.2%보다 2.6%포인트 늘어났으며 지난해 1월 조사 때와 비교해서는 4.6%포인트 증가했다.

'경영 애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도 지난해 1월 조사 때의 49.3%에서 이번 조사 때에는 51.2%로 늘어나 환율하락의 장기화·가속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익분기환율은 2005년 1월 1천115.6원에서 올해 6월에는 946.9원으로, 수출 중단환율은 2005년 1월의 1천5.7원에서 올해 6월에는 891.0원으로 각각 조사돼 손익분기환율과 수출중단환율간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율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환차손(49.9%)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채산성 악화(27.7%)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를 어려움으로 든 응답도 지난해 7.1%에서 이번 조사 때는 19.4%로 배 이상 늘어나 환율하락이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수준을 지나 수출액을 줄여들게 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무역업무도 유비쿼터스 시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걸맞게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역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29일 이와 같은 전천후 무역환경 '유비쿼터스 트레이드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한 'U-KITA' 비전을 발표했다. 'U'는 '유비쿼터스'를 뜻하며, 'KITA'는 '한국무역협회'의 영문 약칭이다.

무협은 'U-KITA' 비전의 성취를 위해 '유비쿼터스 글로벌 거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의 'U-트레이드 허브'를 고도화하고 국내 최대의 '유비쿼터스 무역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비쿼터스 글로벌 거래네트워크의 핵심인 '차세대 e마켓플레이스(eMP)'

는 이용자의 상품등록과 결제, 보험, 운송 등이 논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2B 웹사이트다.

무협은 지난 24일 한국수출보통공사와 한국기업데이터, 이니스, DHL 등 15개 e비즈니스 관련 기관.업체들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U글로벌 거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제휴협약(MOU)을 체결해 차세대 e-MP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말까지 1단계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결제와 보험, 물류 등은 단계별로 적용된다. 무역협회는 이와 함께 국가별 거래정보와 기업정보, 상품정보를 공유하는 70여 개의 무역 관련 기관과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 네트워크가 빈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243회)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번호, 당첨자 수. Includes a grid of numbers and a list of winners.

팝콘복권 (제66회)

Table with columns: 순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Lists prize tiers and winning numbers.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table with columns: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ists various job openings.

증권사 직원 과당매매 손실 "관리소홀 고객 책임 더 크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증권사 직원이 고객 자산을 일임받아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과당매매를 해 손실이 났을 경우 매매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 증권사에 주식 위탁계좌를 만들어 4천600만원을 입금한 뒤 증권사 지점장에게 주식 매매 일체를 맡겼다.

A씨는 그러나 지점장이 계좌를 운용해 작년 8월까지 2천800여만원의 손실을 내자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매매 회전율이 평균 3천566%에 달할 정도로 지점장이 주식을 지나치게 자주 사고 팔아 증권사가 헛금 수수료 등 거래비용만 4천900여만원에 달한 것이 손실의 원인이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가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며 "증권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A씨가 주식 거래를 일임한 뒤 한 달에 2번 정도 지점장을 만나면서도 매매 거래 내역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등 자신의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A씨가 60%, 증권사는 40%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연합뉴스>

정유업계 유가 공개 전면 중단

GS칼텍스에 이어 SK도 유가 발표를 중단하면서 모든 정유업체들이 공장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정유업계를 대표해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 주간 공장도 기준가격을 공개해왔으나 지난 25일부터는 전면 중단했다.

SK에너지는 신현철 사장이 최근 간담회에서 "기준가격이란 말 그대로 어두운 밤길의 등불과 같이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일반 제품의 소비자가격, 즉 희망가격과 같다고 보면 되고, 만약에 없을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이 다니는 주유소의 가격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준 공개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 SK에너지는 산업자원부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석유제품 실제 판매가를 내놓기로 한데 따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서 GS칼텍스는 지난달 20일 매주 화요일 제공하던 기름 값 서비스를 멈춰 애초부터 정보를 오픈하지 않았던 S-Oil과 현대오일뱅크를 포함, 전 정유사가 더 이상 가격을 발표하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産災 발생률 여전히 후진국 수준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안전사고 사망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국내 산업재해 특성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1.1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일본 0.30명, 독일 0.25명, 미국 0.52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인용, 산업재해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액은 전년보다 7천억원 가량 늘어난 15조8천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2%나 꽤 기업차원 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6만6천7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73.5%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규모가 영세할 수록 재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휴가지에서도 주식 생각" 개미들 10명중 7명 매매·시세 확인

개인투자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휴가지에서도 주식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증권포털인 파스넷은 이달 25일까지 27일까지 사흘 동안 개인투자자 2천269명을 대상으로 '휴가지에서의 주식투자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66.2%가 휴가지에서도 주식을 매매하거나 시세정보를 확인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휴가지에서도 주식을 매매할 것이다'는 응답이 29.0%였으며 '시세정보만 확인하겠다'는 응답은 37.2%였다. 반면 '주식은 잊고 휴가를 즐긴다'는 응답은 33.8%에 그쳤다.

'휴가지에서 시세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6.9%가 휴대전화와 PDA 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고, 피서지 주변 PC방(16.0%)과 신문(6.3%) 등이 뒤를 이었다.

'휴가 때 보유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개인투자자 3천2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설문에서 72.07%가 '주식을 보유한 채 휴가를 떠나겠다'고 답변했다. '주식을 팔고 휴가지로 향하겠다'는 답변은 27.93%에 그쳤다. <연합뉴스>